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16, 2026 Vol. 1029

"십자가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남가주교협 '예수사랑 십자가 기도대행진' 은혜 가운데 성료
올해 연합 기도운동 마무리

남가주교협(회장 김은목 목사)가 주최한 '예수사랑 십자가 기도대행진'이 지난 10일 그리피스 파크 산을 오르며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며 남가주와 미국,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 회복과 선교를 향한 사명을 다시 다짐했다.

이번 기도대행진은 남가주교협이 2026년 주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합기도운동의 마지막 순서로 마련됐다.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를 기치로 매월 마지막 주일 연합기도성회를 이어온 교협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예수사랑 십자가 기도대행진' 참가자들이 그리피스 파크 정상에서 기도했다. ⓒ 기독일보

김은목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도대행진의 의미를 설명하며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때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이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약적 표현이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대일수록 십자가로 돌아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특히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피스 파크 산을 오르면서 남가주 전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뒤덮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도대행진은 참가자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길을 묵상하며,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되새기기 위한 취지다. 참가자들은 산행 중 각자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구하며 남가주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김 목사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선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와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남가주교협은 이번 기도대행진을 끝으로 올해 추진해 온 연합기도운동을 마무리하며, 남가주 교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를 소망했다.

토마스 맹 기자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2026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10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웨스트코비나 선한청지기교회에서 'Indispensable-함께여야 온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한청지기교회와 GBC 미주복음방송이 주최하고,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전 미주장신), 월드미션대학교(WMU), 그레이스 미션대학교(GMU), 밀알선교단이 협력한다.

풀러신학교 아모스 용 교수를 장애 신학 및 장애 사역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며, 주요 집회에는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올해 컨퍼런스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장애사역을 시작하려는 한인교회를 위해 한어권 브레이크 세션을 신설했다. 둘째, CPU 주관으로 한인교회 10곳과 발달장애 단체 7곳이 지난 4년간 축적한 콘텐츠와 리소스를 모아 '발달장애 사역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3면에서 계속

美 복음주의자 신앙심 높지만 세속화 추세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전통의 기독교인들보다 높은 신앙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라이언 버지(Ryan Burge) 교수는 퓨리서치센터의 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버지 교수는 종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교회 출석 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등을 종합한 '종교성 지수(CRI·Composite Religiosity Index)'를 활용해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복음주의자들은 적어도 2007년 이후 다른 기독교 전통에 속한 사람들보다 일관되게 높은 종교성을 보였다.

2024년 기준 가장 높은 종교성을 나타낸 집단은 1928~1945년 출생한 침묵 세대(Silent Generation) 복음주의자들로, 종교성 지수는 75%였다. 같은 세대의 비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56%를 기록했다.

Z세대에서도 비슷한 격차가 나타났다. 복음주의자들의 종교성 지수는 63%로, 비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40%보다 2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세대별 신앙심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7년 침묵 세대의 종교성 지수는 복음주의자 80%, 비복음주의자 67%였지만, 2024년에는 각각 75%와 56%로 낮아졌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복음주의자와 비복음주의자 모두에서 종교성 지수가 하락했으며, 모든 연령 집단에서 이러한 흐름이 관찰됐다.

버지 교수는 종교성 지수에서 복음주의자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만 복음주의자들도 세속화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버지 교수는 "복음주의자들은 10~20년 전 같은 세대와 비교해 오늘날 종교성이 낮아졌다"며 "세속화가 복음주의자들을 비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버지 교수는 종교성 하락의 원인으로 세대가 바뀔수록 종교성이 낮아지는 현상과 개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세속화되는 경향을 함께 지목했다.

이미경 기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정부보조 상담 환영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NEWSTA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 Solar & Roof | 집수리 일 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213-310-1800

교회·학교·커머셜 빌딩·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eu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말씀 나눔부터 뜨개질까지… 한인교회 소그룹의 새로운 시도

월드미션대 · 기독일보 공동 주최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



월드미션대학교와 기독일보가 공동으로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발표회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렸다. ⓒ 기독일보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디렉터 신선묵 교수, https://sgmc.wmu.edu/Home)와 기독일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주 한인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가 지난 7일 오전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회들이 참석해 지난 수개월간 진행한 소그룹 사역의 과정과 변화, 열매를 나누고 향후 사역 방향을 점검했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월드미션대학교 스마트 강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WMU는 당시 15 교회를 선정해 소그룹 사역을 지원해 왔다.

이날 중간 발표는 신선묵 교수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교회들은 그룹별로 당초 계획과 진행 상황, 사역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 새롭게 배운 점과 남은 과제, 향후 2~3개월의 계획 등을 나눴다.

아름다운교회 박천수 목사는 소그룹 참여율은 높지만, 구성원 및 소그룹 리더의 역량에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나눔이 이뤄지는 모임이 있는 반면, 주변적인 대화에 그치고 단순한 소속감을 확인하는 데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더 교육에 말씀 중심의 훈련뿐 아니라 아이스브레이크 등 소그룹을 이끄는 실질적인 기술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나눴다.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조준민 목사는 소그룹 리더들이 감당해야 하는 헌신이 커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캠핑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고 나눴다.

더섬기는교회 김영일 목사는 시니어 목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니어를 위한 교재를 직접 제작해 활용한 경험을 나누었다. 그는 시니어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나누고, 그들에게 영적 비전을 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는 51년 역사를 지닌 교회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존 구역 모임은 유지하되 뜨개질 모임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프시코드, 하이킹, 성악 등을 주제로 한 소모임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LA장로교회 한현종 목사는 뜨개질 소그룹 '도란도란'을 소개했다. 이 모임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홈리스들에게 목도리를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우스 패서디나 평강교회 송금관 목사는 부임 당시부터 '풍요로운 삶'과 '작은 목자의 삶' 교재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체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교인을 대상으로 '풍요로운 삶' 과정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양육 과정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 교회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2월에 참여 교회들이 함께 모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교회들이 서로 소통하고 사역 자료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2026 연세 무료 의료/건강 박람회 성황리 마무리



연세 남가주 동문회와 YGCEO AMP 동문회가 공동 주관한 '2026 연세 무료 의료/건강 박람회'가 지난 10월 10일(토),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박람회는 무보험자나 의료 접근성이 낮아 평소 전문 의료진 상담 및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무료 진료, 건강 검진, 전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매년 800명 이상의 주민이 찾던 본 행사는 올해도 500여명의 LA 주민들이 방문하여 의료 혜택을 누렸다.

남가주 동문회 검사 비용 일부 부담으로 부담 낮춰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피검사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어 제공되었다. 또한, 피검사 결과 분석을 위해 검사실(Lab)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일부를 남가주 동문회에서 직접 부담하여 주민들이 부담 없이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전문 백신 접종부터 심화된 '조기 치매·인지능력 검사'까지 제공

연세 남가주 동문회와 YGCEO AMP 동문회가 공동 주관한 2026 연세 무료 의료/건강 박람회. ⓒ 기독일보

또한 Elements Pharmacy의 배려로 독감(Flu) 백신과 대상포진 및 코로나19(COVID-19) 백신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밀 전문 인지능력 검사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어, 설문 형태의 조기 치매 검사뿐만 아니라, 전문 인지능력 검사 기기를 활용해 1인당 약 30분 동안 정밀 검사 및 1:1 맞춤 상담까지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세대 동문 전문 의료진을 비롯해 남가주 간호사협회(KANASC), 재미한인의사회(KAMA), 재미한인치과의사회(KADA) 등 지역 주요 의료 단체가 대거 동참했다.

연세 남가주 동문회 관계자는 "의료 단체와 전문 의료진, 사랑의 교회 간호사 봉사단,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 PAVA 청소년들과 대학생 봉사자, 후원 기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봉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가나안교회, 전재훈 목사 초청 부흥 성회

벨플라워 가나안교회(박일서 목사)는 발안예향교회 전재훈 목사(CTC City to City KOREA 코리아 이사)를 초청해 10월 23-25일까지 부흥 성회를 연다.

전재훈 목사는 서울장신대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발안예향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지은 책으로 《오히려 위로》와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공저)가 있다.

시각 장애인 부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근육이 뼈를 세우지 못하는 '저긴장성 척추측만' 병을 갖고 태어난 딸을 키우고 있다.

부흥성회 일정
10/23(금) 오후 7시
10/24(토) 오전 6시
10/24(토) 오후 7시
10/25(주일) 오전 10시
가나안교회 주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따뜻한 동행으로 전한 희망… ‘2026 밀알의밤’

베이비복스 출신 간미연과 뮤지컬 배우 황바울이 함께해

남가주 밀알 선교단이 주최한 ‘2026 밀알의밤’이 ‘따뜻한 동행’(전도서 4장 9~12절)이란 주제로 10월 9일(금) 토렌스조은교회와 11일(주일)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의 뮤지컬 배우 간미연과 남편인 뮤지컬 배우 황바울이 메인 게스트로 나서 찬양과 간증을 나눴다. 부부가 함께 메인 게스트로 출연한 것은 밀알의밤 역사상 처음이다.

두 사람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열심’, ‘은혜’ 등의 찬양과 베이비복스의 히트곡을 부르며 신앙을 통한 삶의 변화와 부부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간미연 집사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모태신앙인인 황바울 집사는 아내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삶으로 신앙을 보여줬고, 간 집사는 남편의 삶에서 평안을 발견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고 간증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향으로 인해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권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올라대학교 신학생이자 남가주 밀알선교단 인턴으로 활동하는 원호함 씨가 출연한 밀알장학금 영상도 상영됐다. 장애인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역을 소개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가주 밀알 수어찬양팀은 ‘나는 주님께 속한 자’를 수어로 표현하며 공연을 펼쳤다.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2027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6 밀알의밤에 황바울 집사와 간미연 집사가 메인 게스트로 나서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 남가주밀알선교단 제공

밀알 장학생 모집 12/5 마감

미주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마감은 12월 5일이다. (Email, 우편 접수 가능)

모집 대상은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 근로복지생: 0명 (미주밀알선교단 각 지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중 선발)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장학금은 밀알장학생 및 근로복지생에게는 1인당 $3,600.00 (매달 $300.00 / 1 year)이 지급되며, 꿈나무장학생에게는 1인당 $1,000.00 (일시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www.milalsca.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6년에는 119명의 장학생에게 장학복지 기금이 지급됐다.



4U Dream, 그룹홈 프로젝트

비영리단체 4U Dream(포유드림)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조성을 장기 목표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넓혀가고 있다.

10월 17일(토) 오후 4시, 애나하임 한인장로교회에서 “4U Dream Healing Concert”를 개최해 설립 배경과 비전을 소개할 예정이다.

■ 한국에서 들려온 이야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최근 한국에서는 ‘피터팬 아빠’로 알려진 고(故) 전경철 작가의 사연이 큰 울림을 남겼다. 성인 자폐성 장애 아들을 홀로 돌보던 그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의 이야기는 방송과 에세이를 통해 알려졌으며, 지난 9월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사연이 던진 질문은 한인 가족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갈까.”

4U Dream은 이 질문을 미국 한인사회 안에서도 함께 듣고 준비해야 할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공동체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4U Dream의 목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즉 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는 것이다. 거주 공간과 함께 지속적인 돌봄, 익숙한 관계, 지역사회 참여가 이어지는 삶의 터전을 지향한다.

4U Dream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오늘의 만남이 지속적인 참여와 돌봄의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소: 애나하임 한인장로교회 1408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김민선 기자

발달장애 컨퍼런스 선한청지기교회서

➔1면 기사 〈발달장애 컨퍼런스〉에 이이서

올해 주제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몸’ 비유에 바탕을 둔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꼭 필요하다는 말씀(고전 12:22)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될 지체라는 고백이 핵심이다.

23일(금) 저녁 집회에서는 아모스 용 교수가 고린도전서 12:12-13:13을 본문으로 ‘필수불가결함, 가장 큰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Indispensability, the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Body of Christ)이란 강연을 통해 이번 컨퍼런스 주제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시한다.

24일(토)에는 주강사 4명이 네 차례의 주제 강연을 맡고, 앤드류 오피 목사가 영어 브레이크 세션에 함께 한다. ▲ 아모스 용(Amos Yong) 교수는 풀러신학교 신학·선교학 교수이자 프린스턴신학교 신학연구센터(CTI)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금요일 저녁 주제 강연을 맡고, 토요일 브레이크 세션에서는 ‘장애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길’을 나눈다.

▲ 중복장애를 가진 아들의 어머니로 ‘Unbroken Faith: Spiritual Recovery for the Special Needs Parent’의 저자인 다이앤 도코 김 은 ‘깨어지지 않는 믿음: 장애 가족과 함께 걷는 교회’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 조이장애선교센터대표 김흥덕 목사(H. Daniel Kim)는 토요일 오후에 ‘장애를 보는 눈, 교회를 바꾸는 사명’을 주제로 강연한다.



▲ 토랜스 라이트하우스커뮤니티교회의 담임 교육장로인 킴 키라 목사(Kim Kira)는 토요일 파송 예배에서 ‘모두를 위한 복음: 특별한 필요를 품는 목회’를 전하며 컨퍼런스를 마무리한다.

▲ 라이프퍼시픽대학교 성서·선교학 초빙교수이자 글로벌 오순절연구·실천센터 디렉터인 앤드류 오피 목사(Rev. Dr. Andrew K. Opie)는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서 장애신학을 주제로 문화간연구 박사학위를 받은 포스퀘어 교단 목사로, 장애와 교회의 선교를 다루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어권 브레이크 세션은 장애사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교회를 위해 기획되었다. 세미나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에스티 송 교수의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이해하기’와 이현아(WMU) 교수의 ‘장애부서의 예산 마련을 위한 미국 사회복지체계 이해’로 진행된다.

주요 집회와 브레이크 세션에는 모두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일정: 10/ 23 **금 오후** 5:00~8:30
10/24 **토 오전** 8:30~**오후** 8: 30
선한청지기교회(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등록: K-CHURCHCONFERENCE.ORG, (714) 484-1190



제11회 신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대상 GMU 수상



"제11회 설교페스티벌. ©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총 6개 신학대학 참가 설교 대상 전현강 학우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제11회 2026년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이 2026년10월10일(토)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오정택 교수(헨리아펜젤러대학교)의 사회로 1부 예배를 드렸다. 서신형 교수(AEU 미성대학교) 기도, 송정명 목사 환영인사에 이어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교회)가 "인간목회자의 설교"(렘23:16-18) 설교하고, 송정명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됐으며 김진흥 목사(EU 에반겔리아대학교)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설교페스티벌은 김시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 6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전현강 학우(GMU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설교대상 수상했다. 그 외 주제호소력, 주해 상황화 등 부문별 수상이 이어졌다.

이번 설교페스티벌에는 각 학교별 청중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하여, 객관성을 높였고, 졸업생과 동문, 참여학교 교직원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자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설교대상을 수상한 참가자의 설교는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2026 설교 페스티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설교 대상: 전현강(GMU)
주제 호소력 대상: 유일상(CPU)
주해 상황화 대상: 장미(WMU)
설교 구성력 대상: 김 다이아나(EU)
적용 실천성 대상: 정우철(AEU)
설교 시각화 대상: 신용익(헨리아펜젤러대학교)

월가 엘리트 · 마약 중독 · 자살 시도… 바닥에서 만난 '치료자 하나님'

가상 교회 '저스트 지저스'(Just Jesus)의 대표 브라이언 박 목사가 '리바이벌 인 아메리카' 미주 순회 집회를 하고 있다.

그는 은혜한인교회에서 10월 10일(토) 오후 7시에 열린 첫 집회에 이어, 11일(토) 오후 6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두번째 집회를 인도했다. 10월 13일(화) 오후 7시 LA Tapestry LA Church에서 영어권 집회를 인도했으며, 10월 17일(토), 18(주일)에는 뉴저지 갈보리교회에서 집회를 이어가게 된다.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열린 두번째 집회에서, 그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애굽기 15: 26)는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눴다. 그는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현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한 부분을 분석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안에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시제를 초월한 '영원한 존재'로서 절대적 권능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스로 계시는 분과 유한한 인간과의 연결점, 접촉점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원어 해석을 바탕으로 믿음의 의미를 더 구체화 했다.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우리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란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며, 이것은 인간의 힘, 의학과 과학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참 험하게 살았다. 중3 때 미국으로 건너와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증권회사에 들어가 최고속으로 승진해 36살에 부사장이 되었다.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지만, 제 속에 있던 블랙홀이 채워지지 않았다. 술과 마약을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정신적, 영적인 문제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났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왼쪽 발뒤꿈치의 암 종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 폐렴에 이르기까지 여러 건강 문제가 그를 뒤따랐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자를, 불신자로 만들며 보람을 느꼈다.

"당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러 금요일 밤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찾아가 논쟁을 벌이곤 했다. 그러다 친구들에게 "브라이언, 네 말이 맞다. 네 말을 듣다 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한 사람을 구원하고, 잘못된 길에서 건져낸 것처럼 느꼈다. 마귀의 앞잡이처럼 행동했다."

그의 삶은 갈 수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1990년 6월 17일 그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그와 형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술과 담배, 마약을 깨끗이 끊게 하셨다. 허리 디스크도 단 2초 만에 고쳐 주셨다."

그러나 그의 투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많은 투병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저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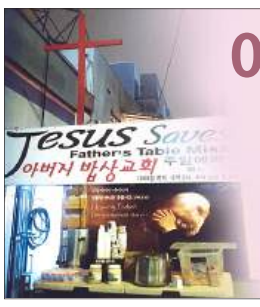
그러면서 여러 국가를 오가며 집회를 하던 중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왼쪽 눈이 안보기 시작했고, 약 1년 6개월 간 시력을 잃었던 일을 나누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로부터 3일 이 지난 날 기적처럼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외에도 수많은 치유를 체험했지만, 한가지 하나님의 치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고 고백했다. 목에 난 혹은 아직 낫지 않았다. 간단한 시술이면 제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고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다. 이 혹 때문에 '혹부리영감' , '김일성', 심지어 이단이라고 조롱을 당하지만, 예수께서 군중들의 조롱을 묵묵히 감내하듯 그 조롱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질문 '내 죄 때문에 아픈건가요?'에 대해서도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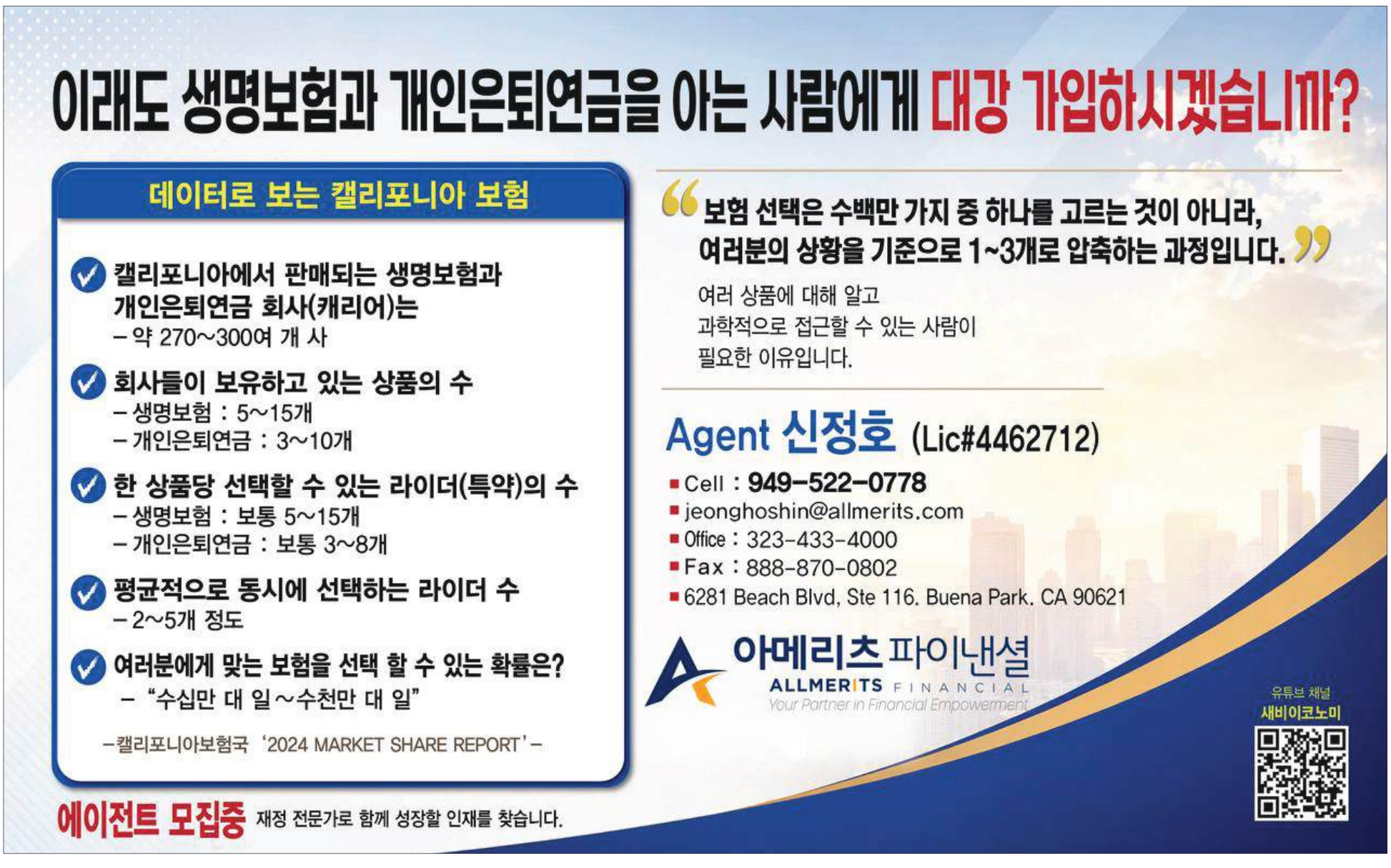
"내 죄 때문에 질병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죄이다. '하나님, 치료를 막고 있는 저의 죄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거기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집회를 마치며, 이번 미국 집회를 통해 모금된 헌금 전액을 미국 내 미자립 교회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센터메디컬그룹

AEP
건강한 내일을 위한
선택의 기간!

OCTOBER 15

언제나 당신편

건강을 돌보는 모든 순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항상 곁에서 함께합니다



21

TILL DEC 7

2027 HEALTH PLAN PARTNERS

astiva HEALTH
Clever Care HEALTH PLAN
CHAMPION HEALTH PLAN
Elite Health MEDICARE ADVANTAGE
IMPERIAL HEALTH
MOLINA HEALTHCARE

* 2026년 9월 1일부터 Astiva 신규 환자 등록을 종료하였습니다. 단, 기존 Astiva 회원은 계속 센터메디컬그룹에 머무르며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신규 환자 등록에만 해당하며, Astiva와의 계약 종료가 아닙니다.

※ 헬스플랜의 혜택 및 서비스는 가입하신 헬스플랜의 종류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되는 혜택, 보장 범위 및 이용 조건은 각 헬스플랜의 약관과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일부 혜택 및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헬스플랜의 공식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888) 847-3098
월 - 금 9:00 AM - 5:00 PM

한글 재창제 · 신분제 타파… 구한말 근대화 원동력은 개신교

조선 말기 구체제의 모순과 몰락 속에서 한국인의 근대적 정체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형성한 결정적 동력은 개신교와 칼뱅주의 사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 원장(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나부터포럼'(대표 류영모 목사)이 개최한 '제6차 나부터포럼' 주제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 그 뿌리를 찾아 내일의 한국을 그리다(기독교·한국·한국인)'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계 주요 지도자와 신학대 총장, 각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함 원장은 "조선의 종교혁명과 계급혁명, 문체혁명을 이끈 핵심 주체는 개신교와 친미기독교파였다"고 했다.



제6차 나부터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나부터포럼

함 원장에 따르면,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당시 칼에 맞아 중상을 입은 민영익(閔泳翊)을 미국인 의료선교사 호러스 알렌(Horace Allen) 박사가 헌신적으로 치료해 목숨을 건지면서, 고종과 조정의 신임을 얻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廣惠院) 설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1883년 보빙사(報聘使)로 미국에 파견된 민영익 일행이 기차 안에서 존 가우처(John F. Goucher) 박사를 만난 것을 계기로, 감리교의 로버트 매클레이(Robert S. Maclay) 목사가 이듬해 조선을 방문해 고종으로부터 병원과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냈다. 그 결과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목사와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여사, 윌리엄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 박사 등이 조선에 파견됐으며, 장로교의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목사는 당초 인도 선교를 가려던 계획을 "조선에 갈 사람이 없느냐"는 환상을 보고 철회하며 극적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다.

함 원장은 "16세기 유럽 종교개혁과 구한말 조선의 상황이 매우 유사했다"며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동방교회의 그리스어 서적과 학자들이 서방으로 유입되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발흥했다. 특히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가 그리스어 원전 신약성경을 번역하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의 '메타노에이테(metanoeite)'를 불가타(Vulgate) 라틴어의 '고백하라(poenitentiam agite)' 대신 '회개하라(resipiscite)'로 바로잡음으로써 중세 고해성사의 신학적 근거를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장 칼뱅(Jean Calvin)은 1541년 『교회조례(Ordonnances ecclésiastiques)』를 발표하며 성경에 명시된 교직은 목사(Pastor), 박사(Doctor), 장로(Elder), 집사(Deacon)뿐임을 내걸고 '개혁된 교회(Reformed Church)'를 제안했다"며 "칼뱅의 제자 존 녹스(John Knox)가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세우고, 영국의 청교도(Puritans), 프랑스의 위그노(Huguenots), 화란 개혁교회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을 세운 뒤 조선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분석처럼,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속을 경건으로 변혁시키고자 했던 칼뱅주의의 엄격한 일상 규율과 '하나님 앞에서의 만민평등' 사상은 계급을 무너뜨리고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행의 촉매제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구한말 조선에 들어온 개신교는 주자성리학의 신분제와 남녀차별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에디슨 박사 등의 치료를 받고 감동하여 개종한 백정 박성춘의 사례처럼, 교회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동등하게 '형제'와 '자매'로 불렸다"고 했다.

또한 "1888년 9월 이화학당 첫 세례식에서 '이씨', '박씨' 등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며 이름조차 없던 여성들에게 마르다, 미리암, 살로메 같은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여매례(Mary), 박에스더(Esther), 하란사(Nancy), 김활란(Helen) 등 초기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특히 1887년 10월 7일 언더우드 목사가 설립한 새문안교회(당시 정동 장로교회)에서 치러진 장로 선출 투표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투표 선거로 기록된다. 존 로스(John Ross)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어둠을 뚫고 모인 14명의 교인이 투표를 통해 백홍준과 서상륜을 장로로 선출했다. 신분과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한 이 사건은 1948년 정부 수립보다 60년 이상 앞선 서구식 민주주의의 최초 도입 사례"라고 했다.

함 원장은 "1934년 윌리엄 에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의 기록처럼, 선비들과 특권층 학자들로부터 '더러운 글'이라며 경멸당하던 언문(한글)은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에 의해 '천상의 보물을 담는 용기'로 재창제 됐다"며 "종교개혁 시절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영어 문체혁명을 일으켰듯, 조선선교사 존 로스, 호러스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조지 히버 존스(George H. Jones), 윌리엄 레놀즈(William D. Reynolds) 선교사는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며 근대 국문학의 기틀을 다지면서 종교개혁과 유사한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다.

함 원장에 따르면, 제임스 게일 목사가 번역한 『천로역정』(1894)은 이광수, 윤동주 등 한국 근대 문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한문의 경전이 『사서삼경』이었다면 한글의 경전은 『성경』이었으며, 배재·이화·경신학당 등은 성경을 교재로 한글을 적극 보급했다.

그는 "근대화 과정에서 기존 사대부 중심의 지배 체제가 해체되고 역관(외국어), 형리(법), 의관(의사), 산관(회계) 등 전문성을 갖춘 '제2신분계층(중인·무반·서얼·서북인)'이 근대 국가의 새로운 인적 자원으로 부상했다"며 "이와 함께 고영근, 남궁억, 박용만, 서재필(Philip Jaisohn), 안창호, 양홍묵,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이승훈, 이원긍, 이준, 정교, 주시경, 최병헌 등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신문』 발행과 독립협회 운동을 이끌었다. 이들은 음주·흡연·도박·축첩을 금하는 생활 개혁을 실천하며 성도이자 시민인 근대적 '한국 사람'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선도했다"고 했다.

함재봉 원장은 "조선의 근대 민주주의 시스템과 국문 체계, 평등 사상은 존 칼뱅의 장로교 정치를 충실히 이행했던 교회와 친미기독교파로부터 출발했다"며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뿌리를 되찾고 본질로 돌아갈 때 내일의 희망을 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강의 이후 정상규 작가(보훈문화연구원 원장)와 김주용 목사(연동교회 담임)이 패널로 나서 좌담회를 진행했다.

노형구 기자

법원, JMS 정명석 · 단체에 성범죄 피해 배상 명령


[사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와 단체 등을 상대로 피해 여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와 단체가 홍콩 국적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호주 국적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한국인 신도 A씨에게 4000만원을 각각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단체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에게는 정씨 및 단체와 공동 부담해야 하는 액수 가운데 3000만원과 이자를 내도록 명했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메이플씨와 에이미씨, A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씨는 2018년 3~4월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2024년 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메이플씨는 5억원, 에이미씨와 A씨는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강지선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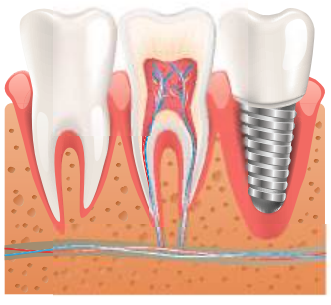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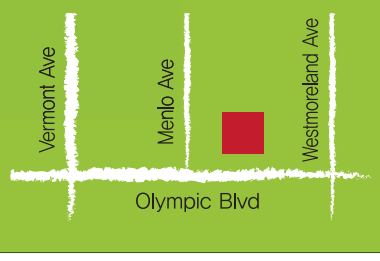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에스더 이 원장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오렌지한인교회
ORANGE KOREAN CHURCH

창립 50주년

감사축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 지나온 50년.
그 깊은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1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1일 (주일) 4pm

연합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드는 감동의 자리입니다.

02

창립 50주년 **부흥회**

11월 6일 (금) ~ 8일 (주일)

금요일 7pm | 토요일 6am, 6pm
주일 1, 2, 3부 예배



강사: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 본교회 4대 담임)

03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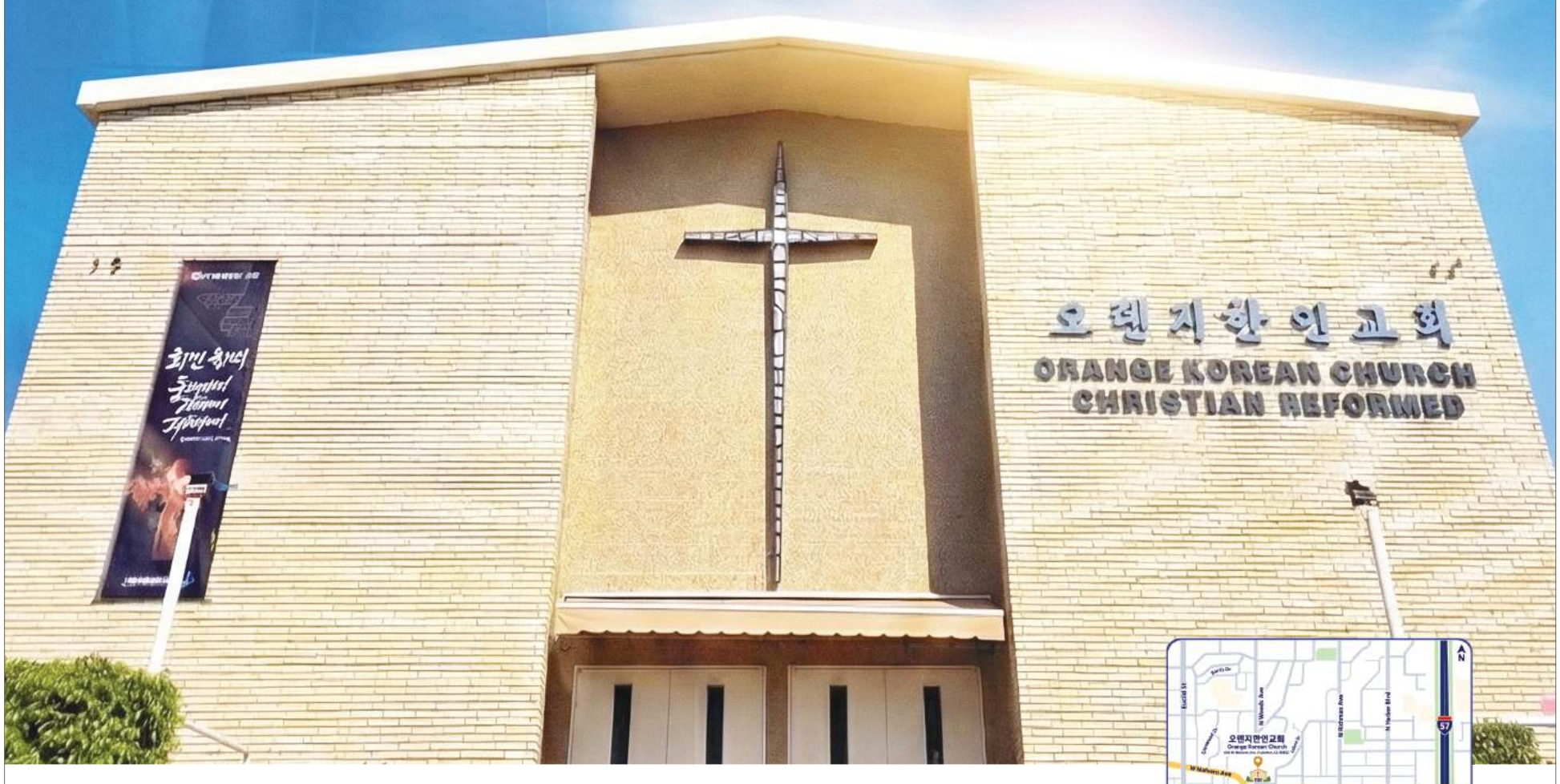
11월 8일 (주일) 2pm

- 신임 직분자 임직식
  (명예장로 **이종순**, 권사 **전월임**, **최유선**)
- **정유성** 담임목사 위임식
- 전교인 성경필사 봉헌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ORANGE KOREAN CHURCH

714-871-8320
www.okcrc.org
643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2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선교’ 위한 MOU 체결

KWMA · KWMC · KWMF 협력해 프로젝트성 재정 지원 지양 · 현지교회와 관계 중심 선교 격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한인세계선교사회(KWMF)가 13일 건강한 한국교회 선교생태계 구축과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선교를 함께 실천하기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노량진 KWMA 세미나실에서 MOU 체결식을 열고,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각국 선교사회가 역할을 분담해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선교를 선교 현장에서 실천하기로 했다. 앞서 세 기관은 2023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이후 힘과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선교를 수행하자는 뜻을 모아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 2025년 KWMA는 7월 남아시아 5개국(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선교사협의회 등과 KWMA가 2024년부터 추진한 New Target 2030의 주제인 글로벌 사우스와의 동반자 선교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다. 2025년 12월에는 KWMA, KWMC가 중남미 14개국의 건강한 선교 생태계구축과 동반자 선교 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었다. 2026년 1월에는 KWMA와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자협의회(한교선)와 ‘현지 중심 동반자 선교 활동’을 위한 한국교단선교 MOU’를 체결했었다.

KWMA는 “오늘 협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KWMA가 꾸준히 주창해 온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선교’를 세 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지에 뿌리내리겠다는 구체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를 위한 국내·미주·선교지 역할 분담”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따르면, 세 기관은 ‘건강한 한국교회 선교 생태계 구축과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선교’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①‘건강한 한국교회 선교를 위한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로의 전환 및 실천을 위한 협력’이다. 이에 KWMA는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선교에 대한 연구와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한국교회 선교 생태계의 전환과 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KWMC는 미주 한인교회 및 선교단체와 협력해 동반자선교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KWMF는 국가별 선교사회 회장단이 선교지 현지교회와 긴밀히 동역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은 공동으로 프로젝트성 재정 지원을 지양하여, 선교사가 물질과 힘에 의존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교회와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적극 격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비서구교회와의 협력 등 미래 선교 과제도 공동으로 대응하여 ②KWMA의 New Target 2030의 실행과 글로벌 사우스, 이주민 선교, 다음세대 선교, AI와 디지털 선교 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③선교지 이단 문제 관련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에 관해 협력하며 ④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에서 협력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양해각서는 체결일부터 4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전 각 기관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4년씩 자동 연장된다.

◇“동반자선교 통해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길”

이날 체결식은 KWMA 문형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KWMF 고덕현 사무총장의 대표기도, KWMA 강대흥 사무총장의 MOU 기조발언, 체결식 및 사진촬영, 단체장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양해각서에는 KWMA 강대흥 사무총장, KWMC 조용중 사무총장, KWMF 공동회장 박광수·장순현·송상천 공동회장이 서명했다. KWMF 대표회장 김종진 선교사(기감, 몽골)는 일정상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기조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 선교사의 45%가 국내에 1년 반~2년 정도 계셨는데 이분들이 두고 온 현장 사역은 그대로 잘 운영됐다”며 “그래서 선교사는 태생적으로 외국인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내국인인 현지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역사적으로, 선교 역사적으로도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는 외부자이고 내부자인 현지인이 잘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선교사는 아이를 낳는 산모가 아니라 현지인 내부자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산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교사의 역할은 (현지에서) 교회를 세워 목회하는 것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현지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건강한 선교패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일에 동참해 준 KWMC, KWMF에 감사하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현지교회가 잘 되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모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에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한 KWMA · KWMC · KWMF 리더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어 KWMF 공동회장 박광수·장순현·송상천 선교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박광수 공동회장(예성, 인도)은 “세 단체가 협력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수많은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도록 애쓰는 것이 (MOU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며 “세 단체가 동반자선교로 현장 중심의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순현 공동회장(통합, 필리핀)은 “저희 교단은 동반자선교가 교단의 정책으로, 현장에 가면 당연히 동반자선교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세 단체가 동반자선교를 위해 아름다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 공동회장은 “필리핀은 세계에서 선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선교사가 목회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현지교회와 부딪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선교사들도 동반자선교 의식을 갖고 현지교회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지족이나 어려운 지역은 교회 개척이 필요해 선교사들이 나가야 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미국 선교사 등을 통해 성경번역, 교회 개척 사역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고 “세 기관의 이번 협력을 통해 필리핀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김진영 기자

러 법원, ‘억류 중’ 박태연 선교사에 징역 5년 8개월 실형 선고

귀국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70)가 러시아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 CEO 에릭 폴리)에 따르면,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은 이민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태연 선교사에게 총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하고 일반 교도소 복역을 명했다. 박 선교사 측 변호인은 즉각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법원은 박 선교사에게 러시아 연방 형법 제322.1조 제2항 A호(사전 합의에 의한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 제322.3조(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적용하고, 두 범죄를 병합해 총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박 선교사와 함께 동일한 조항으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러시아 시민 지나이다 우스티노바(Zinaida Ustinova)는 3건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6년에 집행유예 6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아 구금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한국VOM CEO 에릭 폴리 목사에 따르면, 박 선교사는 선고 직후 외국인 전용 구치소에서 재판 전 구치소(SIZO)로 이송됐으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된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하바롭스크주 자오제르노예(Zaozernoye) 마을의 여성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 목사는 “재판부가 형량만 발표했을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 형량 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서면 판결문은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항소 과정에서 당국이 부당한 구금 기간 산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당국은 박 선교사가 외국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기간을 ‘체류 허가 만료에 따른 행정 위반’으로 보아 형기에 산입하지 않고, 형사 사건 개시 후 구금된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의 기간(약 3주)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폴리 목사는 “당국의 구금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르완다, 종교 규제로 교회 9천 곳 강제 폐쇄… '온라인 예배' 확산



ⓒChatGPT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르완다 정부의 강력한 종교 규제로 수천 곳의 기독교 교회가 강제 폐쇄되면서 현지 예배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고 10월 10일 보도했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교회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오프라인 예배 처소를 잃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복음주의신학교 소속 매체 커넥션(Connexio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단체를 규제하는 르완다의 '법률 72/2018'이 현지 기독교계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르완다 거버넌스 위원회(RGB)와 지방 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전국 1만 3000여 곳의 예배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감찰을 벌였다.

당국은 목회자의 정식 신학 학위 소지 또는 1200시간 이상의 공인 신학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교회 건물에 방음 시설, 피뢰침, 소방 장비, 위생 시설, 주차장 등 엄격한 안전 및 건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교회들을 즉각 폐쇄 조치했다. 도리스 우위치에자 피카르드 RGB 최고경영자는 2025년 11월 의회 출석을 통해 등록 서류 누락, 재정 부실, 안전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총 9171개의 기독교 교회와 이슬람 사원 등을 공식 폐쇄했다고 밝혔다.

CDI는 이러한 획일적인 르완다 종교 규제는 자본력과 행정력이 취약한 소규모 및 농촌 지역 개척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자체 신학교와 인프라를 갖춘 대형 중앙 교회들은 규제에 적응한 반면, 임대 건물이나 천막,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소규모 교회들은 대거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목회자 펠로우십(APF) 조사에 따르면 키게메 교구 소속 239개 성공회 교회 중 단속 이후 운영을 유지한 곳은 23곳에 불과했다. 현지 목회자들은 도보로 이동하는 농촌 지역 교회에 대형 주차장과 고가의 방음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물리적인 예배당을 잃은 기독교인들은 줌(Zoom),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현장 예배 당시 200명에 달하던 참석 인원이 온라인 전환 후 7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히며, 스마트폰이나 안정적인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곤층 교인들이 예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커넥션 보고서는 기독교 교회들이 폐쇄 조치를 피해 온라인과 가정 예배로 전환할 경우, 당국의 르완다 종교 규제와 감시가 오히려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르완다 정부는 교회 폐쇄 조치가 영구적인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언제든 재개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RGB는 2025년 6월부터 전용 행정 플랫폼 '이렘보(Irembo)'를 전격 도입해 폐쇄된 교회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재개장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다니엘 최 기자

英 아동 · 청소년, 교회보다 기독교 신앙을 더 의미 있게 여겨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독교 신앙이 교회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교회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방식과 사역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기독교 단체 스크립처 유니언(Scripture Union)은 최근 '아동·청소년 사역 현황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사역 연구기관 CYM이 2026년 5~7월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회 지도자, 사역자, 부모, 조부모, 교인 등 성인 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서 기독교 신앙의 관련성 점수는 0~2점 척도에서 평균 1.28점으로 나타났다. 성경은 1.13점, 교회는 0.84점이었다.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이 교회보다 54%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응답자들은 신앙 자체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제도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회의 문화와 언어, 구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기 쉽고 신뢰할 만한 환경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및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꼽혔다. 이어 소속감과 사랑, 공동체, 신뢰할 수 있는 성인, 정신건강과 희망 등이 주요 필요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교회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사 결과는 관계와 소속감이 훨씬 더 중요한 필요임을 보여준다"며 복음을 청소년들의 실제 삶과 정서적 필요에 연결해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구와 또래(31.57%)가 꼽혔다. 부모와 보호자(28.01%), 소셜미디어(23.3%)가 뒤를 이었다. 반면 교회는 5.57%, 성경은 1.94%에 그쳤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선교 방식으로 디지털 소통을 꼽은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동아리와 모임 등 정기적인 활동은 56%, 학교와 지역사회 등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만나는 방식은 38%의 지지를 얻었다.

2024년 조사와 비교해 진리와 분별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들은 주관적인 진리 인식과 인공지능(AI), 소셜미디어, 가짜뉴스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응답자의 약 87%는 아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복음 전도는 연령에 적합하고 명확하며, 아동 보호와 투명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23%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5%는 두려움과 지식 부족, 자신감 부족 등을 장애물로 지목했다. 아동과 청소년 사역의 최우선 과제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 꼽혔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성인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교회 의사결정 참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다수는 이들의 참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의견 수렴도 주로 비공식적인 대화나 피드백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의견을 듣는 것과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르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교회 생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보호자의 83%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정기적으로 나누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7%는 매일, 29%는 매주 대화를 나눴다.

다니엘 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나이지리아 중부 무장 괴한 연쇄 총격 주말 사이 기독교인 6명 사망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중부 플래토주에서 주말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풀라니족 무장 괴한들이 기독교인 거주 마을을 연쇄적으로 공격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고 10월 7일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플래토주 보코스 카운티 망고르 마을에 무장 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기독교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같은 날 밤 인근 바카누크 마을에서도 기습 공격이 발생해 기독교인 망가이 고드프리가 부상을 입고 조스 대학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 청년 지도자 브웨팡 선데이는 이번 주에만 보코스 카운티 내 두 마을이 유목민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CDI는 인근 리욤 카운티에서도 주말 사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일 무장한 풀라니족 테러리스트들이 림 마을을 습격해 기독교인 2명이 사망했다. 괴한들은 같은 날 밤 또 다른 기독교 공동체인 웨렝 마을에 침입해 39세 조엘 브웨데와 22세 저스티스 다동을 살해했다. 이들의 공격은 주중에도 이어져 6일 밤 9시경 기독교인이 주로 거주하는 리욤 카운티 졸 마을에 무장 세력이 난입해 총격을 가했다.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무력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리욤 카운티의 림 마을과 웨렝 마을에서 야간 기습 공격이 발생해 팜 에즈라를 포함한 7명의 기독교인이 희생된 바 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 상황이 악화하자 연방 하원의원인 다림 에제키엘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일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이지리아 군 당국이 무장 괴한들의 은신처를 소탕하고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즉각적인 군사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DI는 이번 유혈 사태가 나이지리아 내 종교 및 토지 분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기구인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26 세계감시목록(WWL)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7위로 지목됐다. 특히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중 72%에 해당하는 3490명이 나이지리아 한 국가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공격은 사막화에 따른 토지 강탈 문제와 깊이 맞물려 있다. 영국 의회의 국제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APPG) 보고서는 풀라니족 일부 세력이 보코하람이나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해 기독교인과 종교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로 목초지가 줄어들자 유목민들이 기독교인들의 농경지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이슬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의 치안 통제력이 온전히 미치지 않는 북부 및 중북부 지역에서는 마을 기습과 거액의 몸값을 노린 무장 납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폭력 사태는 남부 지역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미쉘 기자

댈러스 카우보이스 닥 프레스콧 역전승 직후 신앙 고백



NFL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 닥 프레스콧 선수. ⓒlatimes.com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프로미식축구(NFL)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 닥 프레스콧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직후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대중 앞에 고백했다고 10월 7일 보도했다. 그는 신앙이 이제 단순한 개인의 믿음을 넘어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단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팀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현지 스포츠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휴스턴에서 열린 휴스턴 텍슨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두 자릿수 점수 차의 열세를 뒤집고 34대 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팀은 시즌 전적 2승 2패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프레스콧은 45번의 패스 시도 중 32번을 성공시키며 335야드 전진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 종료 40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동료 시디 램에게 12야드 결승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며 역전승의 주역이 됐다.

승리 직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프레스콧은 스포츠 경기 결과보다 신앙의 가치를 강조했다. 최근 선수들이 신앙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프레스콧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며 댈러스 카우보이스 동료 상당수의 진면목이라고 답했다.

프레스콧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단 내에서 기독교 신앙이 긍정적인 전염성을 띠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이 단순히 미식축구 경기를 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단 모두가 신의 뜻에 따라 이곳에 있으며 더 큰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굳건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신앙적 접근이 경기의 승리나 패배 또는 무승부라는 단편적인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그 안에 담긴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나아간다는 의미다. 프레스콧은 신이 바라는 것은 스스로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해 신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 중심의 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브라이언 쇼튼하이머 코치의 공로라고 밝혔다. 프레스콧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신은 늘 피난처이자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신에게 돌릴 때 진정으로 좋은 일들이 따라온다고 단언했다.

프레스콧이 대중 앞에서 뜨거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경기 도중 시즌을 마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발목 부상을 당하며 선수 생명에 큰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묵묵히 재활에 매진한 끝에 2021년 3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4년간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연장 계약을 맺으며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당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프레스콧은 화려한 복귀의 순간에도 자신이 겪은 고난과 이를 극복하게 해준 신에게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부상 직후 경기장에 주저앉아 뼈를 맞추려 애쓰던 순간이나 수술 후 병상에서 깨어났던 두려운 순간조차도 모두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다니엘 최 기자

음란물의 영적 실체,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는 시스템과의 전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데일 모로의 기고글인 '음란물 단순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다. 하나의 영적 체계다'(Pornography isn't just a private sin. It's a spiritual system)를 10월 8일 게재했다.

데일 모로(Dale Moreau)는 성서학 학사(BA), 목회학 석사(MDiv), 성서신학 및 성경언어학 박사(PhD) 학위를 취득했으며, 30년 동안 목회자로 섬겼다. 또한 대학과 신학교에서 강의했으며, 55년 넘게 글을 써왔다. 그의 저술은 학술 문헌에서도 인용되고 있다. 현재 그는 서브스택(Substack)에서 'Theological Voice'를 운영하며, 목회자와 학자, 학생들을 위해 성경이 담고 있는 초자연적 세계관을 재조명하고 회복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교회는 대개 포르노그래피, 곧 음란물 문제를 남성이 끊어야 할 은밀하고 사적인 습관으로 다룬다. 이러한 관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교회의 대응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각각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는 도덕적 접근이다. 포르노그래피는 죄이므로 의지력과 죄의 고백,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때로는 수치심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다. 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분명하며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러나 이 방식만 강조하면 문제는 자신의 나약함과 홀로 싸우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된다. 결국 당사자에게 남는 메시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실패하면 더 큰 자책을 감당하라는 것뿐일 수 있다.

둘째는 치료적 접근이다. 음란물 사용을 뇌의 보상 체계와 연결된 강박적 행동으로 이해하고, 그 배경에서 외로움이나 트라우마 등을 살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 경험을 설명하며, 임상적 통찰도 유용하다. 그러나 행동이 반복되는 기제를 설명하는 것만으로 그 행위의 영적·윤리적 의미까지 모두 밝힐 수는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로잡히는지를 이해하는 일과 그를 사로잡는 구조의 성격을 분별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실체를 보려면 성경이 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성경은 악을 개인의 잘못된 선택을 합한 것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인간 사회를 관통하는 비인간적인 구조와 그 배후의 적대적인 영적 권세도 말한다.

개인을 넘어 산업과 구조를 보아야 한다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한 관점에 따르면, 민족들은 반역한 영적 통치자들의 지배 아래 놓였고, 그 권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켰다. 이러한 권세는 현실의 제도와 경제, 사회 구조를 통해 작용한다. 이 관점에서 포르노그래피 역시 그러한 구조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포르노그래피는 화면 앞에 홀로 앉아 있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끌어들이고, 취약성을 수익으로 바꾸며,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거대한 세계적 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경적 관점은 그 구조를 단순한 시장 논리로만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산업의 배후에 있는 영적 의미까지 살피도록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사적인 습관이라는 좁은 관점으로는 놓치기 쉬운 사실이 드러난다. 포르노그래피는 화면을 보는 사람과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 양쪽의 존엄을 모두 훼손한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은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창 1:27). 그 존엄은 노력으로 얻는 자격이 아니며, 타인이 임의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산업은 화면 양쪽에 있는 사람의 존엄을 동시에 위협한다.

화면 이쪽에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는 시청자가 있다.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이미지는 다른 사람을 인격체보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바라보도록 길들일 수 있다. 화면 저편에는 소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은 인격을 상품으로 바꾸어 이윤을 얻는 산업 안에서 상품화와 착취의 위험에 놓인다.



데일 모로. ⓒChristian Post

화면 양쪽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

개인의 '순결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시청자의 행동과 죄책감에 집중한다. 반면 성경적 관점은 화면 양쪽의 사람을 함께 바라보도록 요구한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데 있다.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면 "보지 말라"는 처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포르노그래피를 인간의 존엄을 겨냥한 영적 착취 구조로 본다면, 회복 역시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구조가 훼손한 시선과 관계,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유란 단순히 음란물을 보지 않은 기간을 늘려가는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달라지는 일이다. 사람을 상품으로 보도록 길들이는 지배에서 벗어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참된 왕께 속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존엄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능력을 회복할 때 행동의 변화도 더 깊은 토대를 얻게 된다. 따라서 회복을 혼자 스마트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견뎌내는 사적인 과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회복에는 언약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동체는 죄를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한 사람을 그 죄로만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를 품고 책임 있는 변화를 돕는 가운데, 오랫동안 훼손된 존엄과 관계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

교회의 돌봄은 착취당하는 사람에게도 닿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가 화면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시청자의 순결에만 관심을 두고 착취당하는 사람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화면 속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산업의 논리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성경적 비전은 죄와 씨름하는 사람의 순결을 회복하는 데서 멈출 수 없다.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존엄이 훼손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시청자의 회복과 착취당하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의 대응은 목회적 돌봄과 함께 선교적 책임을 포함해야 한다. 착취에 단호히 맞서고, 산업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개인이 음란물을 끊도록 돕는 일과 그 산업 안에서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에 맞서는 일은 서로 연결돼 있다.

복음이 제시하는 회복과 자유

교회는 포르노그래피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는 의지력으로 억눌러야 할 사적인 실패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한 강박적 행동이라는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개인의 책임과 임상적 도움을 인정하면서, 현실의 산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영적 착취 구조까지 분별해야 한다. 복음은 이러한 문제에 단순히 더 효과적인 차단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제시한다. 참된 왕께서 악의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셨으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의 시선과 존엄을 회복하신다는 진리다. 그분은 이 구조가 지우거나 상품으로 바꾸려 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

다니엘 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마지막주) 오후 11:00 / 새벽예배 오전 5:20 (화-금) 오전 6:00 (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e.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r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10 / 3부예배 오전 12:00 / 금요예배 오후7:3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00 AM / 주일 2부 9:30 AM (각 교육부 예배) / 주일 3부 11:20 AM (각 교육부 예배) / 한어청년부 1:30 PM / 영어대학부 2:00 PM / EM(dscp) 1부 9:30 PM / 2부 11:00 AM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 PM / 새벽예배 (월-금) 5:30 AM (토) 6:00 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 유년부 (K-2) 오전 10:30 /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 유아, 유치부 오전 11:00 / 초.중.고등부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사랑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 주일 2부 오후12:00 /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 주일2부예배 오전11:00 / 유아유치부 오전11:00 /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 주일 2부 9:30AM / 주일 3부 11:15AM /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 수요기도회 7:30PM /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아노인팅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 주일 EM예배 오후 12: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이충환 담임목사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 EM예배 오전11:00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 교육부예배 오전11:00 /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 주일 2부 예배 1:30 PM / 수요예배 7:00 PM /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 주일학교 오전 11시 /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 금요예배 저녁 7시 /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rkpc.net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1:30 / 중고등부 오전 11:30
청년부 주일 오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홍경헌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베베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제3회 한국동요 부르기 대회 개최

독창 · 중창 98명 참가…고등부 이수민 전체 대상



보나뮤직이 주최한 제3회 한국 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꽃밭에서'를 부른 고등부 이수민 학생이 대상을 받았다.

한국 가곡과 동요를 미주 사회에 소개해 온 비영리기관 보나뮤직(대표 이혜자)이 지난 10월 10일 미주평안교회에서 제3회 한국 동요 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독창 부문 40명과 중창 부문 10팀이 참가해 총 98명이 경연을 펼쳤다. 독창 부문 전체 대상은 '꽃밭에서'를 부른 고등부 이수민 학생에게 돌아갔다.

독창 부문에서는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시상했다.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상은 '하늘나라 동화'를 부른 심재희(Jamie Shim) 학생이 받았으며,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상은 '윷놀이'를 부른 최아리아(Aria Choi) 학생이 수상했다. 중등부 최우수상은 '꽃밭에서'를 부른 김유이(Hailey Kim) 학생에게, 고등부 최우수상은 '섬집아기'를 부른 홍승아(Flora Hong) 학생에게 돌아갔다.

중창 부문에서는 초등부 저학년에서 '윷놀이'를 부른 안요섭 외 6명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초등부 고학년에서는 '가을길'을 부른 최아리아 외 2명 팀이, 고등부에서는 '예쁜 아기 곰'을 부른 Rachael Park 외 9명 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초등부 저학년 2팀, 초등부 고학년 2팀, 중등부 1팀, 고등부 1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보나뮤직이 주최하고 해치빌리지, 미주중앙일보, 미주한국일보, As We Gather Inc., 남가주한국학원이 후원했다.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50주년 감사 축제



풀러턴 소재 오렌지한인교회(정유성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돌아오라! 회복하라!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감사 축제를 연다.

감사 축제는 11월 1일(주일) 오후 4시 연합찬양대 & 오케스트라의 기념음악회로 시작된다.

이어서 11월 6-8일(금-주일)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를 초청해 부흥회를 연다.

11월 8일(주일) 오후 2시에는 신임 직분자 임직식 및 담임목사 위임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오렌지한인교회는 북미주개혁교회 CRCNA(Christian Reformed Chuch in North America) 교단 소속이다. CRCNA는 16세기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 중에서 쯔빙글리와 존 칼빈이 주도한 개혁주의 교회운동을 따르는 '네달란드 개혁교회'에 뿌리를 둔다.

한편, 감사 축제를 앞두고, 오는 10월 21일(수) 저녁 7시 오렌지한인교회 본당에서 굿네이버스 찬양집회를 연다. 이 찬양 집회에는 찬양사역자 조수아가 함께한다.

주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전화: (714)871-8320

김민선 기자

CPU 평생교육원, 시니어 사역 공개특강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 산하 평생교육원(PULI)이 고령화 시대 교회와 이민자 사회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백세사역'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교회 현장에서 시니어 사역을 이끌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며 상시 등록을 받고 있다.

이어 교육 수료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주제별 공개특강 시리즈인 '백세사역 실용과정'을 신설했다.

첫 강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웰다잉 코칭 실천 가이드'다. 크리스천 시니어와 사역자를 대상으로 죽음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신앙의 유산을 가족과 성도들에게 전하는 코칭 역량을 다룬다. 강사는 노년 및 돌봄 사역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최종인 목사(평화성결교회 원로목사)가 맡는다.

두 과정의 세부 일정과 강의 영상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lifelong.cpu.edu)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Prestige-UniversityLifelo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황성만 목사(562-536-0128, puli_pm@cpu.edu).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신성욱 칼럼

사람이 무너질 때…



신 성 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살다 보면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다. 어떤 때일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무너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무너진다. 건강을 잃었을 때 무너진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사람이 무너진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이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슬픔에 빠질 수 있다. 느헤미야 8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 오랫동안 폐허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세웠다. 성벽이 완성되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성벽을 세운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 읽는다. 그런데 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 왜 울었을까?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지금까지의 삶이 보였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이 드러났다. 불순종했던 모습이 보였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울었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폭로할 때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슬피 우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다. 자신들의 마음이 폭로된 백성들의 반응이 울음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한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이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했을까?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하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다. 죄는 심각했다. 회개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영원히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보여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으키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제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등장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한다.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오즈)이다. 이 말은 '요새, 피난처, 견고한 성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요새가 여호와이시다." 이런 의미이다. 생각해 보라.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게 된 것은 무엇때문인가? 죄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들의 모습 때문이다. 그렇다. 자신들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진 것이다.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힘이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기고 요동치 않고 견고한 요새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는 자신만 바라볼 때이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또 넘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자신만 계속 바라보면 결국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가게 된다. 교만하거나 절망하게 된다. 잘하면 교만하다. 내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못하면 절망한다. 무능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린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이다.

느헤미야 8:10은 이렇게 이어진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다. 거룩한 날의 공동체적 기쁨이다. 특히 중요한 표현이 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자기만 즐기는 기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기쁨이다. 그래서 12절에서 백성들은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재근 칼럼

가정선교의 칼럼을 내면서..



이 재 근 목사
미주 가정선교회

1. 급변하는 신세대와 가정의 문제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최근에는 탈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부정하 는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세태와 지구환경오염이라는 위기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AI나 CHAT 같은 감각적 영상매체 시대를 배경으로 자란 소위 말하는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 등의 신세대 대부분은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이름하에 탈 결혼(비혼), 무 자식의 개인의 완성추구에만 삶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극심한 세계적 불황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생기게 되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양육하지 못하고 남에게 맡겨져 키워지는 베이비시트(Baby-Sitter) 아이들이 양산되어 청소년 문제의 발단이 되 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부장적 남성상위의 부권이 상실되어 남녀평등의 시대가 아니라 여성상위시대로 탈바꿈되어지고 있고, 영양과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노인문제는 더욱 심 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재혼(삼혼), 혼외정사, 동성애(레즈비언,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LGBT)문제, 결혼의 신풍속도(비혼,졸혼,해혼,휴혼), 근친상간, 일부다처제, 겹사돈, 가정폭력, 고부간 갈등, 돌싱(돌아온 싱글), 스와핑, 묻지마 관광, 동반자살, 기러기 아빠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 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무방비 무대책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 타까울 뿐입니다. 코로나 팬더믹 전에는 〈부부세미나〉, 〈가정세미나〉, 〈홀사모세미나〉 등의 가 정사역이 그래도 활발했는데, 요즘은 가정사역자들 자체도, 가정칼럼도 가정사역도 보이지 않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2. 가정선교칼럼을 기독일보와 함께 연재

신학교에서 목회상담과 성경적 상담, 그리고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 지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사역자들과 교회가 이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해결 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음에 마음에 큰 충격과 찔림을 받고, 2007년 5월부터 크리스천헤럴드와 7 년 간, 크리스천비전신문과 5년, 미주크리스천신문과 5년을 함께 하며 지난 17년간 새로운 선교의 장(場, Field)인, 〈가정선교(家庭宣教, Family Mission)〉를 주창하면서, 지금까지 가정선 교에 대한 개념(Concept) 자체도 없고, 가정선교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나 서적, 자료가 부족하 여 어려움이 많았지만, 영적, 성경적, 선교적 차원에서 가정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뜻과 의 도를 찾아서 가정선교칼럼을 적게 되었습니다.

가정선교칼럼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4년에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쿰 란)를 발간했고, 4차례에 걸친 한국집회(12교회)를 가졌고,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9번의 〈가 정선교세미나〉를 가졌고, 반년 동안 칼럼 연재를 쉬었다가, 이제 미주 최대 기독신문 중에 하나 인 〈기독일보〉와 가정선교칼럼을 격주로 연재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7년 간 격주간으로 연재되었던 약 350여편의 가정선교칼럼을 다시 정리, 수정, 보완, 완성하고자 합 니다. 먼저 크게 3가 지 주제, 즉 1.가정, 2.가정선교, 3.가정문제 해결방안 순으로 연재하면서, 기타사항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한 노인문제와 효도, 자유분방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신세대의 새로운 결혼풍속도, 동성애, 이혼, 재혼(삼혼), 자살, 부부(아내와 남편), 고부간 갈등 등의 다양한 가정문제들도 심도있게 다뤄 보고자 합니다.

3. 가정선교의 당위성

가정은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단위입니다. 가정의 갈등과 문제 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와 교회와 국가도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같이 가정은 가족의 행복과 휴식(쉼)의 터전이고, 가장 소중한 선교지이고, 국가의 국력을 배양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고, 가정은 의례히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정선교는 1.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와 역할의 회복과, 2.추락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3.말세기적 사탄의 가정파괴공작에 대비하여 가정의 파숫군, 가정의 지킴이와 파괴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정의 세움이를 세우고, 4.먼저 믿은 가정의 선교사를 통한 영적 결손가정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정선교는 가정의 파숫군, 가정의 지킴이, 가정의 세움이, 가정의 선교사 를 세워,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 전 가족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62)714-0691(영육구원) / jaekunlee00@hotmail.com.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4기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성경필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신청방법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6년 11월 6일 (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6년 11월 13일 (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6년 11월 20일(토) 오전 10:30 LA 장로교회 (한현종 담임목사)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장학금 전달식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새라 김 칼럼

가정과 신앙, 차세대를 위협하는 캘리포니아 법안들



새라 김 대표
TVNEXT.org

차세대, 가정, 신앙을 위협하는 법안들, 차세대를 위한 절실한 변화가 필수!

아래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최근에 통과된, 창조 질서를 모독하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위해 만들어 주신 중요한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반성경적인 법안들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이런 법안들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오리건, 시애틀 같은 서부와 뉴욕 같은 동부의 대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수년간 계속 통과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법안들은 가정과 교회,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법안들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TVNEXT.ORG와 수많은 미국 단체들이 연합하여 강력한 반대 편지를 보내고, 공청회 참석 및 반대 발언, 새크라멘토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악법들은 결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므로, 특별히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크리스천 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민주당)이 서명하여 통과되고, 곧 법적 효력을 갖게 될 법안 리스트입니다.

➢ 모든 문란한 'LGBTQIA+' 정책들의 횡포를 보호하고 확대시키는 악법들

AB 1876: 건강보험사들에게 아동의 "성전환(sex change)" 시술 및 수술 비용을 강제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MORE 'SEX CHANGES' FOR KIDS

AB 1967: 미성년자가 부모와 '결별'할 수 있도록 허용 PERMITTING MINORS TO 'DIVORCE' THEIR PARENTS - 심의 중 (2028년 1월에 주지사에 의해 결정될 예정)

SB 934: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던 전문 상담을 완전히 금지함 BANNING COUNSELING FOR GENDER-CONFUSED CHILDREN

SB 1114: 더 많은 'LGBTQIA+' 무정부 상태 + 은폐: "LGBTQIA+ 동성, 트랜스 외 모든 젠더"에 대한 확대 보호 혜택 법안이며, 일부러 누가 "트랜스젠더"인지 법적으로 숨길 수 있도록 허용.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을 숨기고 아동들에게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릴 수 있는 위험이 큼) MORE 'LGBTQIA+' ANARCHY + officially hiding who is "trans"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낙태(화학 낙태약 포함) 증가와 LGBTQIA+ 의제 확대를 위한 악법들

AB 2164: '성전환' 및 낙태를 위한 납치 증가 MORE KIDNAPPING FOR 'SEX CHANGES,' ABORTIONS

AB 2540: 캘리포니아 대학(UC), CSU 및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를 낙태 공장으로 전락시키는 법안

성 정체성과 낙태 논란
신앙·표현의 자유 논란

AB 256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증가시키고 성전환(sex change)을 미화 및 조장하기 위해 'LGBTQIA+' 의제를 확대하고,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의 정의를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재정의함

➢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들 - 기독교 공직자와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AB 1578: 모든 주 및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게 "LGBTQIA+" 세뇌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FORCED 'LGBTQIA+' BRAINWASHING OF PUBLIC OFFICIALS

AB 1803: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LGBTQIA+" 세뇌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FORCED 'LGBTQIA+' BRAINWASHING OF MOST EMPLOYEES

AB 2624, 일명 "Stop Nick Shirley Act"(닉 셜리 금지법): 납세자의 세금이 정부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실을 폭로하는 독립 언론인(예: Nick Shirley)을 처벌 PUNISHING INDEPENDENT JOURNALISTS REPORTING ON FRAUD

➢ 그 외 주목해야 할 통과된 악법들

AB 2017: 정부가 통제하는 모든 K-12 공립학교에서 샤리아법을 따르는 두 개의 이슬람 종교 기념일을 캘리포니아주 모든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명절로 기념하게 하는 법안 PROMOTING ISLAM ABOVE CHRISTIANITY

ACA 7: 제도화된 인종차별과 성차별 조장 PUSHING INSTITUTIONALIZED RACISM AND SEXISM - 심의 중: 2028년 투표 발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매우 위험한 악법임.

SB 762: 캘리포니아 법으로 현재 허용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거래 및 사용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허용하는 법안. 이미 세금이 인상된 도시들이 여럿 있음. PERMITTING A DOZEN CITIES TO RAISE YOUR TAXES - (이미 세금이 인상된 도시들 있음)

참고로, 위에 열거된 모든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고, 해당 의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여러 공청회에서 저희 단체와 같은 시민·기독교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계속 법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도록 허용해야 할까요?

이런 악법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 가치관과 올바른 도덕관을 가진 의원들과 주지사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11월 선거 때 꼭 성경적 가치관(Biblical Values)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방향 더듬이' 를 정하는 일-2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그동안의 방향 더듬이, 교회표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변화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선교에 도전 '하나님께 뛰어 들어라',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영광의 비상', 사역에 헌신 'Always Be there', 복음의 정체성 '여전히 Jesus Alone' 등. 그러나 제게 오래 남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움직였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에 마음을 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품는 성도들을 보며 목회계획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특별히 베델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Come & See 50"라는 주제를 붙들었습니다. 성경의 희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자유를 선포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0주년은 이룬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를 묻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정신을 예배와 설교, 선교 컨퍼런스와 다음 세대 사역, 장애 아동 체임버 오케스트라, 청소년 사역, 교회의 역사 기록과 출판, 선교사들을 위한 사역까지 가능한 한 희년의 정신으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또 교회가 커질수록 '작년보다 더 새로운, 또 다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임무는 새로운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올해는 무엇을 새롭게 할까?' 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묻게 됩니다.교회는 이벤트가 아닌 말씀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봄으로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결국 모든 목회계획은 한곳,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그 분을 더 분명하게 보고,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계획의 열매, 성도들의 변화
희년의 정신으로 맞은 50주년

은퇴를 앞두고, 지난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름 목회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목회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떠난 뒤에도 무엇이 계속되고 있는가'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의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이웃을,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으로 전도하러 나가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해는 주님이 기뻐하신 목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월간 목회 기고글 중 발췌)



기독일보가 전하는
사랑과 위로의 시간



이윤화 콘서트
'생명의 노래'

10월 27일 – 11월 17일
「New Jersey」, 「Los Angeles」 순회

갈라지고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지침이 멈추고
새로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하며...





New Jersey 일정 (10/26~11/1)

11/01 (주일) 5:00pm 믿음장로교회
1209 W Front St, Lincroft, NJ 07738

Los Angeles 일정 (11/2~11/15)

11/06 (금) 7:30pm 복음장로교회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11/07 (토) 3:00pm 소스 몰(The Source)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11/08 (주일) 1:00pm 밸리주하나교회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11/13 (금) 6:00pm 세계등대교회 (청음 콘서트 / 예약제)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11/15 (주일) 11:30am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이윤화 찬양사역자는
현재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윤화 찬양사역자 대표곡은
「은혜」, 「내려놓음」, 「이땅은」, 「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
「いのちの歌」, 「가장 귀한 삶」, 「나는 무익한 종」 입니다

이윤화 찬양사역자의 활동 내용은
2000. MBC 강변가요제 동상
2004. MBC 시트콤 뉴 논스톱 OST 「그녀」
2006. 그룹 신화 8집 앨범 작사
2007. 대한민국 복음성가제 대상, 작곡상
2010 – 2026. 일본 전 지역 순회 콘서트
2011.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위로 콘서트
2015. FEBC 극동방송 음악 프로그램 크리스천 음악 공감 블레싱 MC
2016. CCM 정규 3집 「소망이 끝나는 날에」 발매
2018. CCM 싱글 앨범 「이땅은」 발매
2019. CCM 일본어 앨범 「いのちの歌」 발매
2020. CCM Jworship 5집 「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
2020.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
2021. 작곡가 손경민 미니앨범 「은혜」
2024 – 2025. 일본 노토 지역 위로 콘서트 등 입니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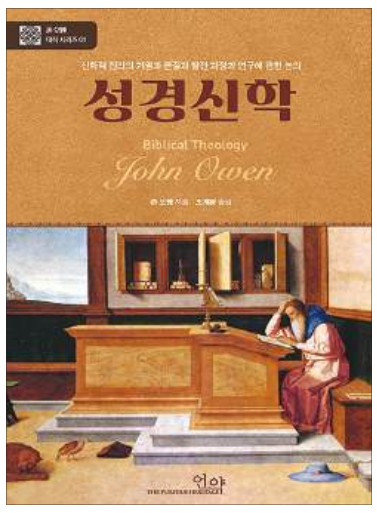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후원교회 믿음장로교회, 복음장로교회, 밸리주하나교회
세계등대교회, 나성영락교회

후원업체 BTS 솔라 design, 센터메디컬그룹,
Trinity MS, The Source,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역사

존 오웬 “철학이 성경과 통합될 수 없는 이유…”



성경신학

존 오웬 | 조계광 역
새언약 | 946쪽

빛나는
종교개혁의 후계자이자
청교도의 황태자,
영국의 칼빈 등
화려한 수식어가 증명하는
존 오웬의 대작 시리즈
제 1권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답게 성경의 무오성을
전제하는 견고한
종교개혁 신학의 체계
위에서 풀어나가는
깊이 있는 해석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는
시각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2024년 도서출판 언약(현재는 새언약)에서 출간한 ‘존 오웬 대작 시리즈’ 첫 번째 작품인 『성경신학』은 946쪽의 방대한 분량에 ‘신학적 진리의 기원과 본질과 발전 과정과 연구에 관한 논의(부제)’를 담았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로 불리는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으로 국내 잘 알려졌는데, 하나의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영혼을 탁월하게 통찰하고 그 연구 결과를 명료하고 담대하게 전달하는 청교도적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번에 『성경신학』을 통하여 발견한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이다. 오웬은 일반적인 성경신학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성경의 역사를 추적하는데, 단순히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문헌과 학자들의 견해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 자신만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의 『성경신학』이 성경 자체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주 들여다보게 될 참고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연구한 것을 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지식의 차이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제임스 패커는 추천의 글에서 “이 연구서에는 우리가 오웬에게 기대하는 모든 특징, 곧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성령에 대한 공경심, 인간의 죄성과 사악함에 관한 깊고 충격적인 통찰력, 거룩함에 관한 관심, 중생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 교회가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견해, 철학적 체계와 방식으로 신적인 것들을 다루려는 시도에 대한 불신, 성경을 현재의 형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연구서는 탁월한 정신과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한 결과물로서 탐구적이고, 영적이며, 헌신적일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오웬의 뛰어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7-8쪽)”고 극찬했다.

존 오웬도 ‘독자들에게’ 남긴 말에 “진리에 대한 순전한 사랑에 압도되어 이 책을 저술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43쪽)”고 밝혔다.

존 오웬의 『성경신학』은 총 7권으로 구성돼 있다. 1권은 자연신학, 2권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신학, 3권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신학, 4권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의 신학, 5권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신학, 6권은 복음 신학, 그리고 마지막 7권은 성경에 관한 논의로 이뤄져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 아래 타락 이전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범죄 이후 어떻게 그 신학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됐는지 설명하고, 이후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까지, 어떻게 신학이 회복 또는 변질 과정을 거쳤는지 논의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까지 세상에 어떻게 각종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12장에 걸쳐 길게 연구하고,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신학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백성이 어떻게 부패와 회복을 이어 나갔는지,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이전에 세워진 신학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다.

존 오웬은 당시 로마 교회나 이방 종교 등이 주장하는 바를 논박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주어졌고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거부당했는지를 이 방대한 분량의 연구를 통해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디까지가 그럴듯한 가설인지는 독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의 “진리에 대한 순전한 사랑에 압도”된 연구서는 독자에게 커다란 감동과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오웬은 성경의 영감, 완전성, 그리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논의하면서, 오늘날 독자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교훈과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철학이 성경과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데, 오늘날 신학 교육이 철학에 얽매여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경고라고 생각한다.


▲저자 존 오웬(John Owen). ⓒ위키

또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과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과 분리하려는 시도를 냉정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비판하는 저자의 열정을 많은 오늘날 신학자와 목회자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고, 지식에 관한 사랑으로 쌓는 이론도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그리고 그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과 두려움을 낳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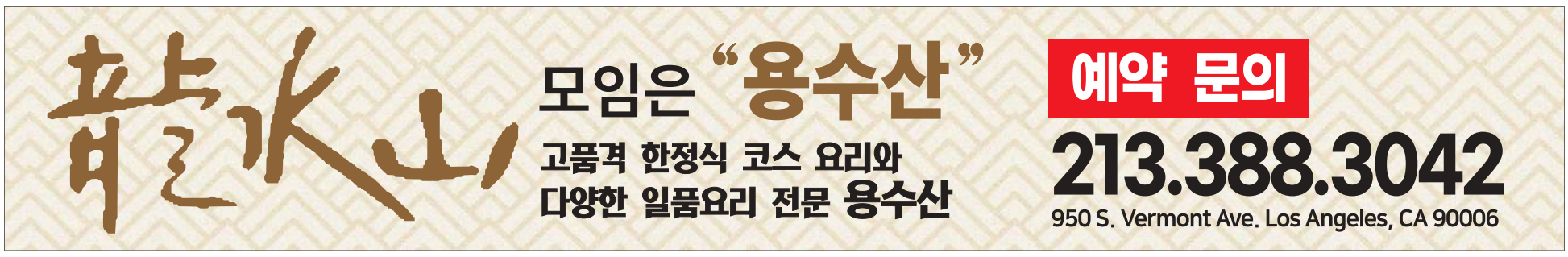
솔직하게 존 오웬의 『성경신학』을 읽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히브리어 모음에 관한 길고 긴 논의를 즐겁게 따라갈 독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그 도전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다.

그 어떤 저자도 설명하지 않은 신학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페르메이르 '우유를 따르는 여인'

창조의 숨결 호흡하는 미적 생활… 예술이란 무엇인가

일상이 지닌 숭고한 가치 환기
최상급 재료, '하녀 그림 사용'
타인 보살피는 소중함 일깨워
예술, 타성 찢고 존재 본질 증명

예술은 인류에게 부여된 풍요로운 선물이자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우리는 가정의 인테리어와 가구부터 거리의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영향력으로부터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다. 미적 가치를 향한 갈망은 인간 고유의 본성이며, 참된 인간성을 구성하는 핵심 조건이다.

예술은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며, 고립된 미술관이나 공연장에만 갇혀 있을 수도 없다. 예술을 특정 장소나 계층의 소유물로 제한하는 시각은 예술이 걸어온 유구한 역사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술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경험과 감정의 지평을 확장하고, 나아가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을 탐구하도록 돕는 강력한 매개체이다.

우리의 직접적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삶의 영역을 밝혀내는 것은 예술이 지닌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예술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현실의 단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비록 대다수 현대인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참호와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고 스러져간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예술 작품을 통해 그 비극에 깊이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은 역사책이나 통계 수치 같은 이성적 자료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진실을 강렬하고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밝혀준다.

기술 중심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감수성과 공감 능력은 마비되기 쉽다. 그러나 예술은 심금을 울리고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자극함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둔감해진 마음속 감수성을 일깨운다.

가령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The Milkmaid)'은 일상의 노고가 지닌 숭고한 가치를 새삼스럽게 환기시킨다.

그림 속 네덜란드의 평범한 하녀를 그리기 위해 사용된 안료 '울트라마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채굴된 청금석으로 만든 것으로, 당대에는 금값에 버금가는 최상급 사치품이었다. 따라서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대작을 주문한 거부(富豪)나 교회 지원이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됐으며, 화가 개인 재량으로 함부로 쓸 수 없는 귀한 안료였다.

하녀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 사치스러운 안료는 역설적으로 타인을 섬기고 보살피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소명인지를 일깨우며 우리에게 '인식의 충격'을 선사한다. 이처럼 우리는 예술을 통해 어떤 진실을 문득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마음이 그 진리를 증언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기묘하게도 이전에는 그 진리를 명확히 의식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내 경험 밖에 있다고 여겼던 진실을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새롭게 자각하는 것이다. 예술은 이렇듯 타성이라는 베일을 찢고, 우리 마음 깊이 내재된 존재의 본질을 일깨운다.

또한 예술은 창조 세계를 향해 예민하게 열려 있다. 예술가의 과업은 모두가 창조 세계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신비를 발견해 내는 데 있다. 즉 피조 세계의 다양성 속에 숨겨진 본질적 통일성,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견고한 영속성, 복잡함 이면에 흐르는 근원적 단순함, 그리고 그 조화가 자아내는 경이로움과 영광을 밝혀내는 일이다. 예술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창조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지각과 감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물론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드러내는 예술가의 과업은 과학의 소명과 그 결을 달리한다. 예술가의 역할은 창조적 구조의 개별적 측면을 목록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물질이나 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아니다.

예술가의 도구는 상상력과 통찰력, 직관과 창조적 사고이며, 이를 예술적 언어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숙련된 능력, 즉 '장인 정신'이다.

우리가 한 점의 풍경화를 깊이 감상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후 시골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변 풍경을 이전과 다른 각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며, 내가 지각한 그림과 눈앞의 현실을 자연스럽게 비교해 보게 된다.

그림 속 정교하게 묘사된 구름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 위 구름을 좀 더 세심히 관찰하게 만들고, 정물화는 사과나 포도 껍질에서 느낄 수 있는 윤기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다. 예술은 이처럼 공간의 무한함부터 단 하나의 나뭇잎이 지닌 미시적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각 지평을 넓혀준다.

우리는 흔히 예술이 특수한 훈련을 받은 일부 전문가들만의 분야라고 오해하곤 한다. 일상에서 미술관이나 오페라 극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은 납득할 만 하다. 그러나 이는 예술을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만 이해할 때 발생하는 오해이다.

우리 주위는 이미 미적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자동차의 유선형 곡선, 의상 디자이너들이 고안한 옷, 잘 가꾸어진 공원과 실내 공간,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장 칼뱅(John Calvin)은 예술이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훌륭한 은혜"임을 밝히며, 그 궁극적 목적을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기독교강요, 2.2.14)"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Johannes Vermeer, 1632-1675)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The Milkmaid, 1660년경)', 루브르박물관.

이 규정처럼 예술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 허락된 은총의 방편이다. 미술사학자 H. R. 로크마커(H. R. Rookmaaker) 역시 예술이 지닌 독자적인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예술은 결혼이나 인간 자신, 혹은 특정 새나 꽃, 산, 바다, 별의 존재가 그러하듯 구태여 다른 이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독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보존된다는 사실에 있다. 예술이 예술로서 존재 이유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예술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시는 것을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Hans Rookmaaker,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김유리 역,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IVP, 1993, 286쪽)."

오늘날 고도화된 기술 사회는 인간이 신체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인간 지각의 퇴화와 신체성의 상실이라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창조성'을 본령으로 삼는 예술의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해진다.

예술가는 시간의 한 순간을 포착하고, 특정한 시선을 선택하며,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조명해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이끈다. 예술은 우리에게 참되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거나 잊어버렸던 창조 세계의 가치들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인간이 세상을 끊임없이 지각하고 그 안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 세상을 지으신 이의 숨결을 느끼고, 그 속에 심어두신 오묘한 창조적 질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내재해 두신 미학적 규범을 충족하고자 하는 실존적 갈망은 누구도 뿌리칠 수 없다. 미적 생활을 영위하고 창조적 소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데 핵심적 부분이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강제북송된 여성 11명 중 2명 처형되고 9명은 무기징역”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ón)이 작성한 최신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유엔 총회 제출 보고서’가 13일 공식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0월 2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될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에 앞서 제출된 것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자의적 생명 박탈(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실태와 최근 정세 및 인권 침해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2월 제9차 조선로동당 대회를 개최해 김정은 총비서를 재추대하고, 국가의 핵무력 보유 지위가 불가역적이고 영구적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은 당대회 이후 엄격한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기강 확립을 강조하며, 사법 및 공권력과 보안 기구를 동원해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을 명목으로 주민들의 시민적 자유 공간을 한층 더 조이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적 생존 환경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인플레이션 심화와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난해 3월 기준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옥수수값은 36% 폭등했다. 국경 통제가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가로막혀 있으며, 2025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23명(여성 198명, 남성 25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연간 1,000명이 넘었던 수치에 비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열리던 모습.ⓒ외교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살몬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사형제 폐지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로, 북한이 오히려 사형 적용 범죄의 범위와 대상을 대거 확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북한 형법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과거 8개에서 최근 16개로 늘어났다. 특히 2023년 12월 형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선전선동죄, 무기·탄약 불법제조 및 사용죄, 폭발물 불법제조·저장·사용죄 등이 사형 항목에 새로 추가됐다.

형법 외에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 2022년 개정),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제정),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 적대물건처리에 관한 법 등을 통해 외부 영상물 유포, 괴뢰 말과 글 사용 및 교육, 방역 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제인권법상 사형은 고의적 살인을 포함한 최고로 중대한 범죄(most serious crimes)에만 예외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표현의 자유 행사, 사상 및 문화적 유입, 경제적·정치적 일탈 행위 등에 사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법상 자의적 생명 박탈을 자행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위반자나 남한 드라마와 영상을 대량 유포한 주민들이 공개 총살형에 처해지는 등 공정한 재판이나 적법 절차가 완전히 배제된 채 공포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북송된 여성들이 직면한 극단적인 인권 유린 상황을 상세히 다뤘다. 2024년 8월 31일 진행된 공개재판 직후, 강제북송된 여성 11명 중 2명이 당일 곧바로 처형되고 9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사형된 여성들은 스스로 인신매매 및 성착취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조직 운영, 성매매, 주민의 존엄 모독 등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형된 것으로 드러났다. UN 인권메커니즘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파생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이나 사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 당국에 공식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교화소와 구류장 등 국가 통제 시설 내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 극심한 영양실조,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허용하지 않은 채, 구금 중 사망 사건을 자연사나 기저질환으로 조작해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이 2024년 말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약 1만 4,000명의 군인 중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장에 투입된 북한 장병들은 드론 전 등 현대전에 대한 사전 준비나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내몰렸으며, 포로로 잡히는 대신 자살할 것을 강요받는 등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철저히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은 귀환병과 전사자 유가족을 체제 선전에 동원하며 청소년들에게 폭탄이 되라는 극단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인권 침해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즉각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첫걸음으로 공식적인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도입할 것과 형법 및 기타 단행법을 개정하여 사형 적용 범죄를 국제인권규약(ICCPR) 제6조에 부합하는 고의적 살인 등 최고로 중대한 범죄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사형 선고와 집행 건수, 죄명 및 성별, 연령별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형수 가족에게 수감 상태와 처형 및 매장 장소를 통지할 것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행위로 사형 등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금시설 내 고문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모든 구금 중 사망 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회원국에는 고문이나 처형 위험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과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운명을 다룰 때 국제인도법과 인도적 원칙, 당사자의 개인적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모든 외교적 관여 및 대화 과정에서 인권 의제를 일관되게 통합하고 시민사회 및 탈북민 주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형구 기자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남북한 성벽 쌓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2026년 월간 지저스아미 발간사 모음집] 우리가 느헤미야다

1982년 9월 니콜라이 교회에서 7명의 청년들로 시작된 기도모임이 1989년 10월 9일 7만 명이 넘는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니콜라이 교회에는 2천 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이날 밤 7만여 군중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때 이들이 외친 구호가 “Wir sind das Volk!”, 즉 “우리가 국민이다!”였다. 공산 독재 정권에 대항해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국가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는 공산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는 뜻이었다. 이 진실하고 용기 있는 외침이 동독의 공산정권을 무너뜨렸다.

정확히 한 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자유의 물결이 동독 국민들을 덮었을 때, 이들은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음으로는 통일을 외쳤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이다. 그들은 동서독 통일을 위하여 외쳤고, 민족 통일을 향한 그들의 염원은 응답되었다. 다음 해인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동·서독은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었다.

대한민국의 영적 현주소는 매우 심각하고 참담하다. 계속되는 정쟁(政爭) 속에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이 득세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고 흑을 백이라고 하는 거짓 허위 날조가 난무하고 있다.

또 맘모니즘과 쾌락주의가 만연한 사회 풍조 속에서 합계출산율 0.7-0.8명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태아 생명을 죽이는 낙태약을 합법화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분단된 지 81년이 지났지만, 기독교 박해지수 1위, 세계 노예지수 1위 국가인 북한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유린과 처참한 노예 생활은 변함이 없다. ‘두 국가론’이 언급되면서 이제는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늘어나고 있다.

남북한이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라이프치히 거리 촛불 기도회에서 총을 든 동독 군인들의 무력 진압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국민이다!” 외치며 밤늦게까지 기도했던 동독 성도들의 함성과 기도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 외쳐야 할 외침이고 기도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유대 백성들이 능욕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가서 “힘을 내어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느 2:17)”고 독려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한국 사회와 국민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치고 독려해야 할 때다. “우리가 국민이다!”라는 동독 성도들의 함성이 이제 우리의 함성이어야 한다.

“우리가 느헤미야다!”

‘무너진 남북한의 성벽을 다시 쌓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국교회와 해외 교포 교회가 남북한의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밤 8시 느헤미야 연합기도회를 온라인(유튜브 생방송)으로 시작했다. 우리 민족 살리는 ‘기도의 벽돌 쌓기’가 시작된 것이다. 느헤미야 연합기도회는 복음통일을 이루고 통일선교 한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외침과 기도는 분명하다.

“우리가 느헤미야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2027년에는 메디칼 받을려고, 정말 다 팔고 넘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데 내년 2027년 부터는 완전 메디칼 자산 기준이 완전 달라져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차도 다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의 고민 상담 내용입니다.

먼저 2026년 현재 메디칼 혜택은 소득은 당연히 저소득 기준에 맞춰야 하고 자산 규모의 평가에서 한 사람은 13만 달러, 두 사람은 19만 5천 달러까지의 소유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7월에는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제한 한도액을 무려 한 사람은 2만 1천 달러, 그리고 두 사람은 3만 1천 달러로 낮추게 됩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13만 달러에서 2만 1천 달러, 무려 10만 9천 달러나 줄어든 것입니다. 2만 1천 달러, 두 사람이 3만 1천 달러라는 뜻은 그냥 아예 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딱 맞춰서 우리 부부 19만 5천 달러로 맞춰 놨는데 다시 조정하란 말인가, 이제는 모두 다 쓰고 없애거나 자녀에게 다 넘겨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하시는 거죠. 여기서 꼭 점검해야 할 것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2027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메디칼 자산 규정은 모든 메디칼 가입자에게 적용되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모든 메디칼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65세 이상이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 등 자산 심사를 받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어떤 메디칼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65세 미만 저소득 성인이나 아동, 임산부 등은 주로 소득으로만 메디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산과 상관없이 혜택이 가능하고요, 2027년 7월부터 바뀌는 자산 기준 변경 신청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2027년 7월부터 바뀌 적용하는 메디칼 자산 규제에 대한 내용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둘째,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이 자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즉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정용품 등은 일반적으로 자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자산, 메디칼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되는 자산은 은행 어카운트, CD, 현금, 주식, 국채, 두 번째 집, 두 번째 자동차 등이 주로 포함됩니다. 즉 은행과 투자, 렌탈 인컴을 받거나 투자용 부동산 등은 부부 두 명을 기준으로 3만 1천 불을 넘으면 메디칼은 포기하셔야 한다는 결론이죠.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은퇴계좌입니다. **“IRA가 있는 저는 어떡하지요?” 혹은 “어뉴이티에 돈을 넣어 뒀는데 그것도 자산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은퇴계좌에서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연금 지급을 받는 조건인 어뉴이티나 펜션 등에 들어 있으면 자산 계산에서 보통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IRA나 어뉴이티가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상품의 구조와 지금 상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지급받는 돈이 소득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은 이 돈이 자산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소득으로 계산되는지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IRA에 20만 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IRA는 자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매달 천 달러씩 찾아 쓰면 그 인출금은 메디칼의 소득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뉴이티에 20만 달러가 들어 있는데 아직 따박따박 고정 인컴 연금 지급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약해서 돈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현금해약가치가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연금화한 어뉴이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A인지, Qualified Annuity인지, Non-Qualified Annuity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용어가 너무 어렵고 내 경우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당연히 문선영의 머니토크팀에게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드리고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자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 있느냐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떤 형태로 보관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줘버리면 해결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데요. 일단 앞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디칼에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일부 재산 이전에 대해 장기요양 자격 심사 시 과거 30개월을 살펴보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의 자산 조건이 아닌 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의 자산을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돈을 그냥 자녀에게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요양 혜택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하면 세금도 세금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는 경험적 사례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뀌는 메디칼 자산 기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받는 메디칼이 자산 심사를 받는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은행 예금과 투자계좌, IRA, 어뉴이티 등 내 자산을 종류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떤 자산이 계산되고 어떤 자산이 제외되는지 확인하시고, 자산을 이전하거나 금융상품을 바꾸기 전에 꼭 카운티 메디칼 담당자와 저희 문선영의 머니토크 재정전문가 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돈이 얼마인지를 넘어서 내 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려드리는 전문가 문선영이었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2026 세미한 워십 컨퍼런스

SEMIHAN WORSHIP CONFERENCE

12월 8일 - 10일 (화-목)
세미한교회 (TX. Carrollton)

* 참가회비 : $100 (숙식제공 / 항공료 별도)
(현장등록 $120) *숙박옵션 제외시 디스카운트 가능

- 참가대상 -
월드회원교회 및 세미한워십의 DNA와 예배 빌드업에 관심있는 교회
예배팀 & 미디어팀 & 예배인도자 및 사역자


최병락 목사
월드사역 소장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은상 목사
월드사역 미주소장
(세미한교회)


심형진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
(스톤게이트 뮤직)


김윤진 전도사
세미한교회 찬양인도자


JON CHOI 교수
DBU 예배학


강찬호 목사
세미한교회 예배담당


엄준식 목사
세미한교회 미디어담당

- 공통 강의 : 예배강의 및 예배팀 클리닉
- 파트별 심화 강의: 예배인도, 보컬, 교회방송 & 미디어 운영 노하우, 예배 영상제작(뉴스영상) 등

신청 | 세미한교회 홈페이지 및 채널 (큐알코드)
문의 | c.kang@semihan.org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교회 SEMIHAN CHURCH
W.O.R.L.D. 월드사역연구소